

2) 조 왕

조왕은 중국에서도 모시는 신격이다. 천자나 제후가 모시는 오사(五祀)나 칠사(七祀)에서 여름에 제향을 받았으며, 민간에서는 부엌신으로 모셨다. 이러한 조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역시 부엌신으로 모시고 있다.

조왕의 신체는 조그만 중발로 거기에 정화수를 담아 모신다. 조왕이 화신(火神)인데도 물을 떠 모신다는 점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원시 심성에서 물과 불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통한다. 물과 불은 모두 종교적으로 정화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풍요다산을 의미하는 점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다. 조왕이 화신인데도 불을 모시지 않고 물을 모시는 것은 양자의 이러한 동질성과 관계가 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잘 모시는 일은 예로부터 중요시하였는데, 불씨가 집안의 재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설화는 이러한 불신앙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다. 그런데 불을 항상 모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봉안하기에 보다 편리하면서 또한 종교적으로 동질성을 공유하는 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중발'이라 불리는 주발이 신체로 등장하였다. 중국에서 들어온 조왕신앙이 우리의 문화 속에 수용되면서 정화수를 담은 중발로 조왕의 신체가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조왕은 부엌의 화신·재물신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일반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주부들은 조왕 중발에 물을 갈아넣으면서 자녀의 수험이나, 가족들의 사업, 건강 등 일상생활에 대해 기원한다. 특히 요즘 들어 다른 가택신에 대한 믿음이 급격히 약화되고, 조왕에 대한 신앙만 존속하는 상황에서 다른 가택신앙의 기능을 상당부분 수렴한 듯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 역시 조왕 신격의 보편화와 관계가 있다.

조사지역인 왕조동 현남마을에서 조사자가 만난 10여 명의 할머니들 중 7~8명이 조왕 중발을 모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개 부엌이 입식으로 개조된 상태에서 싱크대 위에 중발을 모시는 형태였다. 마찬가지로 용당동의 아파트에서도 모시는 사례가 조사되며, 용수동 삼거리마을에서도 싱크대 위에 조왕 중발을 모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왕신앙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박복심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나무로 불을 때는 아궁이 위에 설치된 것이고, 나머지는 싱크대 위에 중발을 모시고 있는 예다.

조왕 중발에 물을 떠놓고 비는 것은 여자의 몫이다. 여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세수를 하고 물을 떠놓는다. 과거에는 마을 앞 공동샘에서 물을 떠다 조왕을 모셨지만, 지금은 집 안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바치고 있다. 박복심 가정의 조왕 중발은 시할머니에서 시어머니로 이어져오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조왕을 모시는 것은 식구들이 건강하고 무사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이다. 명절이나 가족들의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례가 필요하지 않으며, 365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모신다. 만약 친정에 가거나 여행을 해서 집을 비웠을 때는 조왕 중발의 물을 갈아넣지 못해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 박복심은 시집온 후 시어머니가 조왕 중발을 인계하여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 친정인 상사면 기동마을에서도 이렇게 조왕을 모시는 것을 보았다. 성주단지도 있었으나 지금은 모시고 있지 않다.

■ 제보자 : 박복심(여, 52, 낙안면 창녕리 가정마을 360번지), 1994. 12. 21. 현지조사

부엌을 개조해 싱크대를 설치했는데, 그 위에 조왕 중발을 모시고 있다. 시집온 뒤 시어머니

가 모시고 있던 것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 조왕 중발의 인계인수는 시집은 뒤 바로 이루어졌다. 이는 조왕 중발은 밥을 해먹는 사람이 모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하지는 않고 초하루, 초사흘날에 물을 갈아넣고 애들 생일이나 제삿날 같은 때에도 물을 갈아넣는다. 개인집에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을샘을 이용했는데, 남보다 먼저 물을 떠오려고 했다. 시집오기 전 친정어머니가 남보다 먼저 물을 뜨기 위해 캄캄한 새벽에 바가지 하나만 가지고 물을 떠다 갈아넣는 것을 보며 자랐다. 물을 갈아넣으며 비손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정월 초하룻날 같은 경우, “용왕님네, 올 1년 운수 무사대통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빈다. 요즘에는 과거만큼 정성들여 조왕을 모시지는 않는다. 물 갈아넣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한다.

■ 제보자 : 최춘심, 1995. 5. 26. 현지조사

동네가 깨끗하면 물을 갈아넣는다. 초상이 나거나 애기를 낳으면 물을 떠놓지 않는다. 특히 애들 시험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정신을 쏟으려고 물을 갈아넣으며 비손을 하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물을 어깨 너머로 서너 번 뿌리는 ‘모른목욕’을 한 후 물을 떠왔다. ‘모른목욕’은 목욕을 한 것처럼 깨끗하게 몸을 닦는 것을 의미했다. 물을 떠놓으며 마음속으로 기원을 했다. “우리 아들 시험을 보니 조왕님네랑, 성주님네랑,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랑 향와 동심을 해서 받을 받아서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었다.

■ 제보자 : 배손심, 1995. 5. 26. 현지조사

이외에도 이종엽, 이형란(여, 59), 황일례(여, 68), 윤순예(여, 82) 등이 조왕 중발을 모시고 있다. 자세하게 조사한다면 훨씬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조왕 중발은 각 가정에서 모신다. 이것은 장남집에서만 조상을 모시는 것과 비교된다. 조왕 신앙은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로 전수된다. 앞의 사례들에서도 조왕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 부엌일을 맡게 되면 조왕을 모시는 일도 물려받는다. 조왕 중발을 모시는 것은, 주부가 새벽 일찍 일어나 남보다 먼저 정성스럽게 정화수를 떠다 바치는 일이다. 이것은 한국 여성의 가족에 대한 모성애(여성애)가 함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가족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구상화된 신앙체계가 조왕신앙이다.

중발에 물을 갈아넣는 일을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한 날에만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동네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정화수를 떠놓지 않는다. ‘동네가 깨끗하지 않으면’, 즉 동네에 초상이 나거나 출산이 있으면 물을 갈아넣지 않는다. 초상이나 출산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통과의례의 신성한 일이다. 장례나 출산의례에서 금기나 종교적 절차, 의례 등이 엄숙하게 지켜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우리의 민속문화에는 신성한 것끼리 만나는 것을 서로 피하려는 원리가 작용한다. 초상이나 출산으로 종교적 심성을 공유하는 마을사람들은 신성한 시간과 공간에 함께 머무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그 시·공간에서는 신성한 것들이 서로 대면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원리 때문에 동네에 초상이 났을 때는 조왕 중발에 정화수를 떠놓지 않는 것이다. 조왕의 신성성과 통과의례의 신성성이 맞부딪치는 것을 피하려는 민속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조왕에 대한 믿음은 소박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한 절차나 꾸밈이 없으며, 오로지 가족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그 핵심이다. 가택신앙 자체가 약화되어가는 것을 불

잡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화는 그 양식의 해체와 더불어 정신도 소멸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의 민속문화에 깃들여 있는 참된 정신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되살려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인들이 싱크대 위에라도 조왕 중발을 설치하여 모시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준다.